

# 송암산단 '모빌리티 허브' 도약한다

### 광주 대표 노후산단...국토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선정

### 5년간 1600억 투입 문화·디지털 모빌리티 애프터마켓 기반 구축

대표 노후 산단으로 꼽히는 광주 송암산단지가 전국 유일의 문화·디지털 기반 '모빌리티 애프터마켓 산단'으로 거듭난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공모 2023년 상반기 도시재생 사업 후보지로 '송암산단 도시재생 혁신지구'가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 중 경제거점 조성을 위한 것으로, 산업·상업·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5년간 국비 250억원을 지원받으며, 통합심의 등 행정적 지원과 함께 건축규제 완화 등이 가능하다. 후보지로 선정된 송암산단은

실현가능성·타당성 등 국토부의 자문을 받아 계획을 보완한 후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될 예정이다.

송암산단은 준공 후 40년이 경과한 노후산단으로,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60.2%에 이를 정도로 편의·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민선 8기 핵심사업인 '5대 신활력벨트' 가운데 하나인 '효천역디지털콘텐츠벨트'와 연계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중심으로 급변하는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송암산단 혁신사업을 추진해왔다.

송암산단 혁신지구 사업은 산단 내 유휴부지에 5년간 160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문화·디지털 모빌리티 애프터마켓 기반을 구축하는 게 핵심

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장 정비인력 양성·애프터마켓 스타트업 육성 등을 위한 모빌리티 복합허브센터 ▲미래 모빌리티 체험 실감콘텐츠 제작 등을 위한 첨단실감 문화콘텐츠 테마파크 ▲일자리 연계 주택(150호) 및 찻집공원 조성 등이다.

시는 현재 추진중인 미래차 국가산단 등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와 함께 송암산단 내에 생애주기별 모빌리티 혁신 기반을 마련해 '전장 기반 미래 모빌리티 선도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다.

김준영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송암산단의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보완해 쇠퇴하고 있는 송암산단을 전국 유일의 문화·디지털 기반의 모빌리티 애프터마켓 산단으로 재생하고, 일자리 창출,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 도심서 가족과 '문화예술 소풍'

### '아트피크닉' 가을 시즌 개막... 11월까지 5개 자치구 공원에서 10회

광주 도심 속에서 가족과 함께 문화예술 소풍을 즐기는 '아트 피크닉' 가을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첫 행사를 시작으로 16일 북구 양산호수공원(오후 2시), 9월 23~24일 남구 빛고을 농촌테마공원(오후 2시), 10월 7일과 14일 서구 영산강 극락호수공원(오후 3시), 10월 21~22일 광산구 황룡강친수공원(오후 3시), 11월 4일과 11일 동구 산수동 문화마당(오후 3시) 등에서 10차례 진행된다.

올 가을 시즌에는 공원시설 등 자치구별 주요 다중집합장에서 예술체험과 아트블럭놀이, 에어바운스, 마술·버블·저글링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다음달 광산구 황룡강친수공원에서 열리는 아트피크닉은 광산뮤지컬페스티벌과 연계해 열리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아트피크닉 버스킹 대회도 마련된다. 광주시는 양산호수공원(9월 16일)과 극락호수공원(10월 7일)에서 열리는 아트피크닉에서는 시민안전체험마당 부스 등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 4월 29일 아트피크닉을 개막한 이후 7월 1일까지 중외공원 야외잔디광장에서 총 10회에 걸쳐 다채로운 가족단위 놀이프로그램과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 사회서비스원 신임 원장에 김대삼 교수

광주복지원과 통합해 새롭게 출범한 광주사회서비스원 원장으로 김대삼 전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선임교수가 임명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8일 시청 접견실에서 김 원장과 비상임 이사·감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김 원장과 함께 김운배·류영춘·박경인·박남연·박인아·유승주·이금희·황옥희·황현철 이사, 안길전 감사가 새로 임명됐다.

원장 임기는 2026년 9월 6일까지 3년, 비상임 임원 임기는 2025년 9월 6일까지 2년이다. 김 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언급된 통합 조직과 노사 관계에 대한 우려를 수평·포용적 리더십, 소통하는 노사 상생 협력으로 해소하겠다"며 "조직 안정과 경영 효율화를 신속히 추진하고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토산어종 방류로 전남 강 수산자원 회복

### 16개 수역 9개 품종 133만 마리... 다음달까지 43만 마리 추가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내수면 생태계 보전과 수산자원 회복 등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순천 등 16개 시·군 16개 수역에 뽕장어, 쏘가리 등 토산어종 우량종자 9개 품종 133만 마리를 방류한다. 지난 3월 순천 등 7개 시·군에서 어린 은어 21만 마리를 첫 방류한 이후 9월 현재까지 뽕장어 6만 6000마리, 메기 32만3000마리, 동남참개 26만 6000마리, 쏘가리 3만3000마리 등을 16개 수역에 방류했다.

오는 10월까지 동자개 등 4개 품종 43만 마리를 추가로 방류할 계획이다.

방류 후에는 방류수역 포획금지 기간 설정, 어구

제한, 불법어업 단속 등 수산자원 보호 조치를 해당 시·군, 어업인 등과 함께 협력해 취할 방침이다. 그동안 내수면의 무분별한 개발과 남획, 환경오염, 외래어종 유입 등으로 지역 토산어종 자원이 급감하고, 내수면 어업인구도 줄어 지속적인 내수면 수산자원 관리와 생태계 회복이 절실했다.

이 때문에 민물고기연구소는 2002년부터 지난 해까지 60억 원을 들여 지역 토산어종 10종의 어린 물고기 2900만 마리를 주요 강·하천 등에 방류해 내수면 자원량 증가와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가 9일 오후 광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전남을 방문한 아랍에미리트(UAE) 셰이크 아흐메드 빈 파이살 알카시미 왕자(로얄패밀리오피스 소유주)와 환영 만찬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전남도-UAE, 재생에너지·스마트팜 교류 물꼬

### 알 카시미 왕자 일행 해남·진도 등 방문...김영록 지사와 협력 논의

전남도가 아랍에미리트와 재생에너지, 스마트팜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아랍권과의 교류 물꼬를 댔다. 전남도는 민선 8기 들어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각국에 지역 농수축산물 수출 및 유통 거점을 마련하는 등 전남을 세계 무대에 알리며 지역 경제 발전을 꾀하고 있다.

전남도는 10일 "아랍에미리트(UAE)의 셰이크 아흐메드 빈 파이살 알 카시미 왕자(로얄패밀리오피스 소유주) 일행이 지난 9일 전남을 방문해 해남 솔라시도와 강진 스마트팜을 둘러보고,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로얄패밀리오피스는 정보통신(IT)과 무역, 부동산, 스포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왕자 일행은 솔라시도를 방문해 스마트시티와 전남 서남권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어 대규모 스마트팜인 '탐진들'의 최첨단 스마트 유리온실을 둘러보고 전남의 스마트농업과 친환경농산물에 감탄사를 연발했다.

이 자리에서 셰이크 아흐메드 빈 파이살 알 카시미 왕자는 "솔라시도와 스마트팜을 둘러보니 대한민국의 기술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느꼈다"며

"향후 전남도와 돈독한 협력관계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지사는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한 전남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고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매력적인 지역"이라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전남도가 아랍권 국가들과 상생 물꼬를 트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올 연말 아랍에미리트(UAE)를 비롯한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등을 방문해 전남의 친환경농산물과 재생에너지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아랍권 국가 등과의 본격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담양 삼만·해남 금호지구, 유해시설 정비

### 국비 138억 투입 농촌 공간 재생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공간정비사업 2023년 3차 공모에 담양 삼만지구, 해남 금호지구가 선정돼 국비 138억원을 확보했다. 농촌 공간정비사업은 농촌의 정주환경을 악화시키는 마을 인근의 공장, 민집, 축사 등 유해시설을 정비해 주거·서비스·일자리 기반시설 구축 등 공간재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이번 공모에서 전남도내에서는 10개 시·군 11개 지구가 선정돼 총 사업비 1357억원 중 국비 678억 원을 확보했다. 담양 삼만지구는 약취로 인근 고대마을 등 4개 마을과 산업단지에서 민원이 빈번했던 축사(계사)를 철거하고 스마트원에 체험실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주여건 개선 및 친환경 농업 활성화에 따른 주민 소득 향상을 목표로 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9년  
1954-2023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운 박사

## 2024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증명한다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학과	수시	정시	합계
인문사회	신학과	30	5	35
	한국어교육학과	1	1	2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29
사범	유아교육과	7	3	10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1	8	29
총계		83	22	105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3. 9. 11(월) ~ 15(금)  
· 전형일: 2023. 10. 6(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 3(수) ~ 6(토)  
· 전형일: 2024. 1. 19(금)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그대를 기다립니다!

